

# “기회 넘쳐나는 도시 만들겠다”

## 강기정 광주시장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 국비 예산 확보  
광주현안들 6개월내에 해결 방안 제시  
도시철도 2호선 지연 시민 공감속 대안 모색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민선 8기를 시작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이 '새로운 광주시대'를 선택해준 만큼 창의적 행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정권교체로 달라진 정치환경에 우려가 크지만 자신의 정치력과 추진력, 이른바 '정부적 리더십'으로 광주를 기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국회의원 3선의 정치경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부수석 등을 통해 쌓은 국정경험을 기반으로 한 빠른 추진력과 여야를 넘나드는 풍부한 인적네트워크가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민선 8기 슬로건으로 내건 강 시장을 만나 향후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민선 8기 슬로건이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정했다. 슬로건에 담긴 뜻은.

▲지금까지 광주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 이 과정에 많은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자신의 삶을 잠시 내려놓기도 했다. 이제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가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거듭나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일을 통해 자신이 빛나기를 바라고 있다. 시민들이 이 같은 행복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시정 운영의 결과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내일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회 도시'는 광주가 많은 기회, 넓은 기회를 갖는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자 지향점을 담은 것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50+세대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의 삶이 빛나고 미래보다 더 가까운 내일이 빛나는 광주, 머뭇머뭇 빛을 발산하는 기회의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

-정권이 바뀌었다. 현 정부에서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정권교체로 달라진 정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치 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광주에 기회가 될 것이다. 광주의 비전이 대한민국의 보편적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과 상생의 답을 끊임없이 찾아가겠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출향 인사 등 현 정부와 소통할 연결고리가 많다.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의 강점인 빠른 추진력과 정부적 리더십을 심분 발휘하겠다.

특히 국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재정경제자문역으로 모셨다. 현 정부 장·차관급에 지역 인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광주에 절실히 필요한 재정과 경제 분야 인사를 모이게 할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도 광주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많은 분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대응책은?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협상이 최대 관건이다. 우선 진행 중인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잘 마무리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겠다. 무엇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시민들이다. 모든 사업과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상의 민주주의 '광주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함께 숙의하는 행정을 펼치겠다.

-광주의 현안사업을 6개월 이내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있는가?

▲핵심 현안에 대해 광주의 밀린 과제 5+1이라 표현했다. 우선 지산IC 개통,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백운 지하차로,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건립 등 다섯 가지에 대해 6개월 안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 가운데 시민들은 복합쇼핑몰을 바라고 있다. 중요한 부분은 복합쇼핑몰이 기존의 백화점과 같은 단순한 구매 공간에 그쳐서는 안된다.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루 종일 먹고, 놀고, 즐기는 공간이다. 대중쇼핑인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국가의 지원을 이르고 민간 자본의 투자, 행정의 신속한 인·허가 등 3박자를 모두 갖춰 국·기 주도형 복합쇼핑몰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공공항 문제다. 이 현안은 투트랙으로 준비하려고 한다. 현행법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현행법에 근거해 대구 군공항 모델을 준용해서 준비하겠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을 약속한 만큼 특별법 제정등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현안사업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지난 5월19일 우리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서진건설 측에서 항소한 관계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소송에 적극 대응하며, 소송과 병행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 방안 마련 등 속도를 있게 추진하겠다. 아울러 절박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뿌리이자 혁신의 원동력인 호남에서부터 당의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

-민주당의 혁신과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는데.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광주시민들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만큼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의 혁신도 호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호남이 민주당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호남 광역단체장 중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절박대 무겁게 명심하고 민주당의 뿌리이자 혁신의 원동력인 호남에서부터 당의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대도약, 행복시대 열겠다”

## 김영록 전남지사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  
호남정치 복원, 지방시대 기수 되겠다  
현안 해결 광주와 상생, 전북과 연계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4년간 전남을 이끌게 됐다. 민선 7기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지지율 1위를 줄곧 유지했던 그는 당내 경선 없이 6·1 지방선거로 직행해 큰 격차로 상대 후보를 따돌리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1977년 행정고시 합격 후 완도·목포 등 시·군, 전남도, 중앙부처 등에서 공직자를 지내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퇴직해 김 지사는 18·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다양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 현장 소통 능력,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 등을 갖춘 그는 민선 7기 전남지사로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에 매진했다. 7조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11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도민 개인소득은 전국 17위에서 10위, 근로자 평균 급여소득은 전국 7위에 올랐다.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 교고,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시흥 등과 함께 전남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라선 고속철도, 남해안철도, 여수-남해해저터널 등 기반시설도 정부 계획에 반영하거나 착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도민들의 탄탄한 지지 기반, 민선 7기의 명실상부한 실적,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일 재선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 등을 토대로 민선 8기 김 지사는 호남 정치의 복원과 지방 중심시대 개막, 정치·행정의 대전환, 더 위대한 전남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 있다. 전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호남권역 전반의 발전을 이끌고 수도권으로의 극심한 인구·경제 집중을 견제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당당하게 전남 발전을 위한 예산과 사업을 요청하고 광주와의 상생, 전북과의 연계에 나서 '호남 영광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민선 8기 최우선 과제가 있다면.

▲전남에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민선 7기의 성과(1002개 기업 27조8000억원 투자 협약)를 넘어야겠다. 그동안 기반을 닦았던 해상풍력, 에너지, 바이오, 우주·항공,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워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광주와의 상생 1호 협력사업인 '첨단 반도체 특화산단',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등에 힘을 쏟겠다. 젊은이들이 돌아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전남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여러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다.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문화 대전환' 등 미래는 '대전환의 시대'이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로, 전남이 역사적 대전환을 주도해 대도약을 향한 발판으로 삼겠다. 남해안 남부권을 경제수도 수도권, 행정수도 충청권에 버금가는 신해양·친환경·문화 관광 수도로 키워 세계와 경쟁하고 싶다. 남해안 우주산업과 소재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이어 남해안 남부권을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삼겠다. 호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문화·관광 융성 시대'를 꽃피우겠다.

-대선, 지선 패배와 함께 호남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는 미래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나라만큼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지역 간 격차가 큰 선진국은 없다. 전

남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기수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일한 재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도 다하겠다. 민주당이 좀 더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 국민이 진자 원하는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대, 남녀, 이념 등 다양한 갈등에 놓여있고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의 정도도 심각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지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을 챙기겠다. 자유와 정의, 헌신과 희생, 화합과 통합의 호남정치를 복원해 여러 갈등으로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묶어내는 데도 기여하고 싶다.

-민선 8기 전남 발전의 장애물이 있다면.

▲인구 감소,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청년은 지역의 미래다. 인구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고 업무 조정·예산 지원할 부총리급 '국가균형지방자치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늘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7조원까지 늘리는 등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

-전남 발전을 위해 광주와의 상생, 전북과의 연계 등은 불가피하다.

▲광주와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으로 한 뿌리이고, 경제적으로도 공동 운명체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는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 전남 의대 설립,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갈 방침이다. 화산백신산업특구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서남권 원자력·화학원 유치,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제정 등 광주만 아니라 전북과도 다양한 상생협력에 나서겠다. 전북의 경우 과거 호남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와 양보가 필요할 것 같다.

-도민과 전국 호남 향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0만 도민, 1000만 전남 향우로 인해 민선 7기 성과와 혁신이 가능했다. 이제 민선 8기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향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힘이 되어주는 도지사', '일 잘하는 도지사'가 될 것을 약속하고 싶다. 비상한 각오로 전남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위대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1, 102, 103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1, 202, 203, 204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몰라드치과	3층 301, 302, 303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1, 402, 403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층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사옥개관기념 무궁무진 특판**

**3%** 정기에탁금 (1년)  
(300억원 한도)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0%) / 170,000 (15%) / 160,000 (20%)
	3개월	570,000	513,000 (10%) / 484,500 (15%) / 456,000 (20%)
	6개월	1,080,000	972,000 (10%) / 918,000 (15%) / 864,000 (20%)
	12개월	2,040,000	1,836,000 (10%) / 1,734,000 (15%) / 1,632,000 (2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럭키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